

후원안내와 방법

여러분의 후원금은 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해 쓰입니다.

일반후원 _ 우리은행 1005-100-929731

(예금주: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CMS후원 _ CMS 신청서 작성, 금융결재원을 통해 정기적으로 후원
후원자의 계좌번호와 인적사항을 센터로 알려주시면 매월 자동 출금됩니다.

물품 제공 _ 심터 이용자를 위한 먹거리와 생활필수품,
신생아용 분유와 이유식, 기저귀 등 아기용품

자원활동

한국어 교육 교사활동 _ 이주여성 한국어 교육, 가정방문, 한글교실

상담활동 _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상담

통·번역 _ 이주여성 교육 및 홍보, 자료 번역, 이주여성 상담 시 통역

이주여성 서포터즈 활동 _ 이주여성인권센터 사업별 기획팀 활동

홈페이지와 웹채터 관리



사)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Women Migrants Human Rights Center of Korea

03112) 서울시 종로구 종로65길 16 (송인동, SSPM빌딩 4층)

전화 02) 3672-8988

전자우편 wmigrant@wmigrant.org

전송 02) 3672-8990

누리집 www.wmigrant.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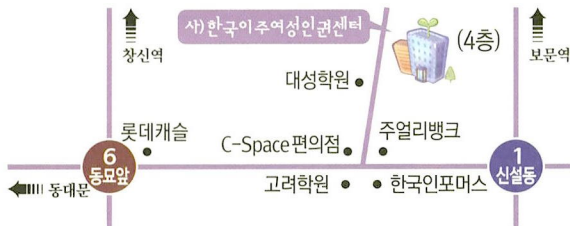
2016

2017년 1월 10일 발행

Women Migrants Human Rights Center of Korea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소식지

이주여성을 위한 민간 대사관



지하철 Subway

1호선 신설동역 11번 출구
6호선 동묘앞역 2번 출구

버스 BUS

신설동 경유 버스를 타고
동묘앞 정류장에서 내려서
C-space편의점과 주얼리뱅크 사이
골목으로 들어선 다음
송인2동 동사무소 옆
SSPM빌딩 4층으로 오세요.



사)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Women Migrants Human Rights Center of Korea



새날이 밝았습니다.
2017년 정유년, '붉은 닭의 해'입니다.
오래전,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이야기가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같은 말인데 매우 다른 메시지가 생겨났습니다.
'암탉이 울면 알을 낳는다.' 같은 행위를 완전히 다르게 바라봅니다.
좀 다르게 생각할 힘, 어디서 왔을까요?
당연하다고 여겼던 어떤 것을 낯설게 만들고 다른 것으로 만드는 일은
세상을 다양하게,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을 때 일어납니다.
매일 반복되는 관성의 그 순간에서 약간 벗어나면 다른 것이 보입니다.
'아하'의 순간입니다. 깨닫고 발견하고 만들어가는 기쁨의 순간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2017년은 '아하'의 순간이 많았으면 합니다.
추운 겨울내 어둠을 촛불로 밝힌 한국사회는 풀어가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16년을 걸어오면서 이주자들과 함께
새로운 길을 닦았지만, 2017년도 마음을 새롭게 다지고 눈을 반짝이며
또 다른 길들을 만들고 살펴봐야 합니다.
다문화라는 말은 상식처럼 입에 오르내리지만, 이주자의 권리는 어디서 맴돌고
있는지 예민하게 짚어봐야 할 때입니다. 법과 제도가 다 이루어진 것 같고 무언가
화려하게 펼쳐지는 세상 같지만, 눈속임도 있고 허상도 있고 쪽정기도 많습니다.

2017년은 그동안 이어진 관성에서 비껴나 새롭게 사물을 보는 해였으면 합니다.
처음 시작했던 그 설렘과 감수성으로
삶과 일을 돌아보고 돌보는 날들이었으면 합니다.

2017년, 우리는 어떤 알을 낳을까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를 지지하고 함께 한 모든 분은 어떤 알을 낳고 싶은가요?
오랜 시간 품고 있었던 나의 알을, 나의 바람을 이제는 세상으로 밀어내봅시다.
그 바람은 사람들의 바람들과 연결되고 또 연결되어 사회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2017년,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법인과 6개 지부(대구, 부산, 경남, 전남, 전북, 충북)는
사람들을 연결하고 연결된 그 바람들을 사회의 희망으로 만들겠습니다.
이주자들의 웅성거림에 언어를 달고 빛을 비추겠습니다.

2017년, 그렇게 모인 희망들이 하나둘씩 실현되는 해이길 기대합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를 지지하고 함께 한 모든 분에게
건강하고 따스한 '아하'의 기운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2017년 1월
공동대표 한국영, 강혜숙, 김엘리와 활동가 일동





성폭력 상담원 교육
이주여성성 위해 성폭력 상담원 교육을 4월 1일부터 5월 20일 까지 진행했다. 이주여성 7명과 선주민 5명이 교육과정을 수료 해 성폭력 피해 여성을 도울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됐다.



농업 분야 이주여성성폭력 실태조사
공익법인재단 '공감'과 공동 주최로 '농업 분야 이주여성 성폭력 실태조사'를 했다. 농업 분야에 종사하는 이주여성 200여 명을 대상으로 성폭력 실태조사를 했으며, 12월 14일 보고회를 했다.



이주여성 인권지원단 교육
이주여성 인권 현장에서 일할 이주여성 인권지원단 교육이 진행 됐다. 이주여성 15명과 선주민 3명의 활동가가 함께 '세계화와 여성이주', '아시아 이주실태', '이주여성의 권리와 책임' 등 이주 여성 인권 지원하는 데 꼭 필요한 교육을 진행했다.



활동가 세미나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총 8회에 걸쳐 이주여성·선주민 활동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가 있었다. '이주정책론' 세미나, 이주민 인권영화 감상, '중국 교포, 이주노동자의 인권실태'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었다.



후원행사 '날채와' 그림 그리고 어울림
6월 30일 이주여성성 위해 민간대사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설립 16년을 맞아 후원행사를 열었다. 이주여성 공연, 법률지원단 발언, 이주여성 활동가와 함께 퀴즈, 지원받은 이주여성의 감사편지로 이어 졌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주여성 인권활동가 전국 수련회
전국에서 활동하는 이주여성·선주민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주여성 역량 강화 워크숍'을 진행하고 친목을 가졌다.



법인설터협의회
법인 산하 이주여성설터 5곳과 분기별 법인설터협의회를 진행했다. 설터 입소 이주여성 지원 상황과 방향모색, 자녀를 데리고 퇴소한 이주여성 자립 지원, 상담 슈퍼비전, 설터 운영규정 확정 등 다양한 활동을 의논했다.



타국에 통번역지원단 교육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주최로 이주여성 인권지원 및 상담에 필요한 기본정보와 달라지는 외국인 관련 제도, 법률 처리 절차 등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다. 평소에도 이주여성 인권 지원에 관심 있거나 인권 지원 활동 중인 자원봉사 28명이 이 교육에 참여했으며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외국인 성매매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간담회
태국 성매매 여성 사망 사건 등을 비롯해 외국인 성매매 여성의 피해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7월 20일 이주여성 성매매 관련 문제 현황을 공유 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인종차별 금지법제화와W 이주민 권리활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회원단체로 한국사회에 만연한 여성 및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표현 문제의 심각성과 그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UN여성차별철폐위원회, 자유권위원회 민간보고서에서 이주여성에 대한 정부정책 대응 권고안을 제안하는 활동을 했다.



2016년 이주여성성 승념 잔치
세계이주민의 날을 기념하여 150여 명의 이주여성과 가족들, 선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난타, 각국 전통춤, 노래 장기자랑, 퀴즈 등을 하며 모두 함께 즐겁게 지냈다.

경남지부 활동 " "



안전하고 친화적으로 된 상담실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과 한국여성재단의 '공간문화개선사업' 지원으로 상담실 공간을 개인상담실, 집단상담실로 분류하고 개보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 나아가 이주여성들의 삶의 변화를 위한 위로와 치유의 공간으로 거듭났다. 경남 지역 이주여성과 자녀들이 안전하게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성 친화적 시설과 공간 디자인으로 새로운 도약을 시작한다.



여름방학 '다문화놀이터'

여름방학을 맞아 7월 27일(수)~8월 24일(수)에 초등학생 15명 대상으로 다문화 감수성 향상을 위한 다문화 놀이터를 진행했다. 중국, 네덜,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주여성다 문화강사가 직접 엄마 나라 '이야기와 놀이', '의상', '음식 체험'을 통해서 다양한 문화를 배우는 시간을 진행했다.



당당한 엄마되기

결혼이주여성들이 낯선 한국에 와서 결혼생활, 가족생활을 여성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안다. '나를 찾아 떠나는 여생'으로 부부갈등, 가족갈등, 양육갈등으로 지친 자신을 탐색하는 시간을 가지며,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통해 가족을 바르게 인식하고 가족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전문상담사와 함께 집단상담의 시간을 가졌다.

대구지부 활동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이주여성 안전지킴이단 캠페인> 진행했다. 올해는 특히 경상북도의 11개 지역을 돌면서 현지 관련 기관과의 협력 속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주여성들이 여성폭력 피해를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된 안내지와 홍보물을 배포하고, 현장상담도 함께 하여 효과적인 캠페인 활동이 되었다.



<이주여성안전지킴이단 캠페인> 활동



이주여성안전망 구축을 위한지자체의 정책과제 -다문화 인권 친화적인지역사회를 위하여

'2016년 세계여성폭력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다문화 인권 친화적인 지역 사회 개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에 지역의 연구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서 의견을 내주었고, 이주민이 처해있는 인권침해 현실에 대해 깊이 느끼고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한부모 이주여성·아이들과 함께하는 영상교육과 촬영여행

한부모이주여성들이 센터와 협력하여 하는 정기적인 모임으로, 올해는 휴대전화를 자녀와 잘 소통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기 위한 휴대전화 동영상 교육과 여름 여행을 다녀왔다. 힘든 가운데도 서로서로 돕는 멋진 공동체로 성장하고 있다.



인식개선 및 체험활동

시민에게 다문화 이해를 체험으로 느끼게 하며, 문화적인 차이, 의식의 정도, 생활상의 차이를 새롭게 재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우리와 더불어 사는 이주민들을 낯설지 않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 변화의 기회가 되었다.

자조모임 활동으로 자신이 지니고 있는 긍정적인 잠재력을 돌아보고, 발전적인 삶을 꿈꾸며, 정보를 교류하는 시간이다. 일상생활을 수다로 풀며 마음의 여유를 찾고 성장하는 자신에게 위로와 칭찬을 하게 되었다.

부산지부 활동



취업설계 교육

취업을 원하는 이주여성의 진로설계 및 적성검사를 통한 성공적인 취업 준비 프로그램이다. 한국사회의 노동 현실과 다양한 직종의 직업을 살펴보고 자신에게 맞는 직업이 무엇인지 인지할 수 있었다.



이주여성 자조모임



한국어 교육

이주여성이 사회생활과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을 지원했다.



요리교실

이주여성들이 요리 교실에 참여하여 김장 김치 담그기 실습으로 한국의 음식 문화를 더 친숙하게 이해하게 되었다.



미술치료

이주여성이 다양한 미술 매체를 이용하여 자존감과 대인 관계를 향상할 수 있게 미술 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전남지부 활동 " "

전북지부 활동

'광복 70주년! 기억, 그리고 미래를 위한 날개짓'
인권센터와 함께 날다.



친구들과 함께 떠나는 물놀이여행
'친구야~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



성탄절 잔치
태어나자마자 이주민이 된 예수와 함께!
우리 아이가 제일 예뻐요!



봉덕초등학교 5·6학년 다문화사회 인권교육
11월 3일~4일 초등학교 5학년 100명, 6학년 125명을 대상으로
'우리 모두 소중한요'라는 주제로 다문화사회 인권교육을 했다.
다문화 인권 감수성을 재미있게 배우는 시간이었고, 아이들
역시 뜨거운 호응으로 함께 했다.



다아모(다문화아파트와모임) 박들
5월 22일, 괴산 산막이옛길. 이주여성과 남편·자녀 30여 명이
함께 나들이를 다녀왔다. 나들이를 통해 이주여성 가족 구성원
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의미 깊은 시간이 되었다.



충북여성연대활동가대회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주관으로 열린 충북여성연대 활동가 대회.
10월 14일~15일(1박 2일) 충북지역에서 활동하는 9개 인권 단체,
33명의 활동가가 모였다.

충북지부 활동

이주여성 상담통계

1) 상담 통계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누계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740	655	958	816	855	892	741	870	864	925	913	972	10,201
대구이주여성상담소	335	285	265	299	378	394	422	327	351	346	325	328	4,055

2) 상담 유형 (중복 체크)

계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대구이주여성상담소	
	누계(2016.1.~12.)	비율(%)	누계(2016.1.~12.)	비율(%)
가정폭력	1,899	7.99	629	15.77
일반폭력	62	0.26	16	0.40
성폭력	226	0.95	40	1.00
성매매	7	0.03	0	0.00
부부갈등	2,130	8.96	542	13.59
가족불화	720	3.03	140	3.51
가출	434	1.83	49	1.23
심리정서	451	1.90	8	0.20
외도	239	1.01	31	0.78
이혼문제	3,931	16.54	1,017	25.50
일반법률	4,559	19.18	381	9.55
체류문제	2,577	10.84	264	6.62
노동	372	1.56	63	1.58
생활	3,659	15.39	170	4.26
의료	1,128	4.75	310	7.77
쉼터	1,378	5.80	142	3.56
번역	(생활에 포함)	0.00		
통역				
기타			187	4.69

이주여성쉼터 입소현황

(2016년 12월말 기준)

		서울이주 여성쉼터	대구이주 여성쉼터	청주이주 여성쉼터	전북이주 여성쉼터	전남이주 여성쉼터	한울타리 쉼터
전 연말 보호인원		7(4/3)	15	8	12(7/5)	0 (2015년 개소)	3
연중 입소자	소계	26	79	57	54	24	128
	성인	15	50	36	29	16	78
	동반아동	11	29	21	25	8	50
연중 퇴소자	소계	17	81	56	51	17	131
	성인	10	52	36	27	14	82
	동반아동	7	29	20	24	7	49
12월말 현재 인원	소계	9	17	9	15	7	12
	성인	5	11	4	9	5	7
	동반아동	4	6	5	6	2	5
연중 평균 보호인원		9.87	14.67	10.64	10.54	9	106

이주여성 베트남 항공권 지원 현황

(2016년 1월~12월)

연번	이름	방문 시기	지원 사유	추천 기관	지원 내역
1	황○○	2016.2. 9.	가정형편이 어려워 4년간 베트남에 다녀오지 못함. 친정어머니의 칠순 잔치와 아버지의 건강 악화 등으로 고향 방문 지원	베트남 모임	왕복 항공권
2	레○○	2016. 3. 2.	딸이 동거 남성에게 살해당한 베트남 출신 친정 어머니의 귀국 지원	구로구다문화 가족지원센터	피해자 친정어머니 편도 항공권
3	하○○	2016. 6. 12.	아동 성폭력으로 인한 혼인취소 사건 현지 조사 활동	한국이주여성 인권센터	3인 왕복 항공권
4	한○○				
5	김○○				
6	보티○○	2016.12. 5.	내담자 남편에 의한 폭력으로 협의이혼 후 귀국 지원	전북이주여성 인권센터	편도 항공권
총계		6명 지원			

HS (주)한신항공 "힘내라 친구야!" 기금으로 지원되었습니다.



쉼터 퇴소 이주여성을 위한 자립지원 현황

(2016년 1월~12월)

	출신국	지원 내용
상반기 1월~6월	베트남 3 (자녀 3)	냉장고, 세탁기, 밥솥, 선풍기, TV, 침대, 이불, 육아용품 등에서 가정에 필요한 물품 우선 지원
	캄보디아 2 (자녀 2)	
	중국 1 (자녀 1)	
	계	6가족 12명(성인 6, 자녀 6) 7,310,597원 지원
하반기 7월~12월	베트남 10 (자녀 15)	냉장고, 세탁기, 밥솥, 선풍기, TV, 침대, 이불, 육아용품 등에서 가정에 필요한 물품 우선 지원
	중국 2 (자녀 2)	
	필리핀 2 (자녀 4)	
	캄보디아 2 (자녀 2)	
	스리랑카 1 (자녀 2)	긴급 생계비 (2가족 월세) 지원
	우즈베키스탄 1 (자녀 1)	
	인도네시아 1 (자녀 1)	
	계	19가족 54명(성인 19, 자녀 27) 16,771,270원 지원
총계	25가족 58명 (성인 25명, 자녀 33명) 총 24,081,867원 지원	

사각지대 이주배경 아동 양육하는 이주여성 지원현황

(2016년 1월~12월)

연번	이주여성 출신국	지원 대표적인 사례
1	베트남 6	사례 1 : 박○○(베트남) 가정폭력으로 가족이 해체되었고, 아버지가 이혼 후 아동의 양육비를 지원하지 않으며 어머니가 혼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상태
2	필리핀 4	
3	중국 3	
4	몽골 2	사례 2 : 단킨○○(필리핀) 아버지는 가정폭력으로 접근 금지를 당하고 경제적으로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음. 어머니는 가정부 일로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자녀 4명을 키우면서 월세비를 내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
5	네팔 2	
6	모로코 1	
7	이라크 1	
총계	19명 아동에게 매월 양육비 지원 총 8,100,000원 지원	

폭력고행이주여성자립사례

저는 마그루얀 ○○○○입니다.
필리핀에서 왔고요, 이름이 길어서 사람들이 줄여서 ‘멀리’라고 부릅니다.
멀리~^^ 한국에 와서 남편과 사는 10년 동안 폭력으로 힘들었습니다.
제가 일하러 나가서 집에 없을 때는 남편이 아이들을 때려서 더는 같이 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도 상담받았지만, 남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난여름, 일을 다녀오니 아이들이 또 아빠에게 맞아서 얼굴이 붓고, 멍들어 있었습니다. 심터로 피했습니다. 심터까지 찾아내 쫓아오는 남편을 피해 심터를 옮기기도 했습니다. 심터에 있으면서 아이들 심리 상담도 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여러 가지가 안정되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이주여성 송년 잔치에 나가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가수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이 가수처럼 잘한다고 칭찬해서 무척 좋았습니다.
저는 정말 노래를 좋아합니다. 아이 둘도 같이 노래했지요.
늘 막막하기만 했는데,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심터를 떠나 아이들과 함께 살기로 할 때는
냉장고와 세탁기, 밥솥 그리고 옷장과 이불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서
쉽게 심터를 떠날 결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 둘과 어떻게 살아가나 막막했지만,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연락을 주고받으며 힘든 일 있을 때 의논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런 고마운 곳이 있어, 고마운 사람이 있어서
제가 열심히 살아갈 힘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흥겹게 부르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시간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멀리에서 온 마그루얀 ○○○ 드림



이주여성 목소리

“희망과 함께 새로운 시작” 캄보디아에서 온 파니 활동가입니다.

2016. 9. 5. 저한테 참으로 의미 깊은 날입니다.

저는 캄보디아에서 온 ‘소파니’입니다.

한국에 온 지 엇그제 같은데 벌써 6년이나 되었습니다. 저는 2010년에 남편을 만나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온 지 3개월 지나서 한국어 방문지도 교육도 받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집합교육도 받았습니다. 저는 공부하는 것을 좋아해서 한국어를 배우면 배울수록 한국말이 무척 재미있었습니다.

저는 캄보디아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부모님의 일을 도왔습니다. 그래서인지 한국에 와서도 남편에게서 용돈 받은 것보다 제힘으로 돈을 벌어 친정도 도와주며 남편에게 힘을 보태 생활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공부하면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하며 실생활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그 후에는 이중 언어인 한국어-캄보디아어의 장점을 살려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통역 지원을 시작해 우리은행 주말 통역 지원,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 캄보디아어 상담, 다문화강사 등 이주여성 지원 활동을 했습니다.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교육과 다양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컴퓨터를 만진 적 없는 제가 한국에 와서 이런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참 신기하고 좋았습니다. 주변에 어려움을 겪은 이주여성이 있으면 발 받고 뛰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캄보디아 친구는 물론이고 다른 나라 출신 친구도 많습니다. 저는 인권지원활동을 하면서 작지만, 친구들과 목요일마다 캄보디아 옷이나 관련 물품을 판매하는 일을 통하여 캄보디아 이주노동자와 이주여성 모임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배울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열심히 다녔습니다. 2015년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개최한 말하기 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았고 고려대학교에서 주최한 글짓기 대회에서 은상을 타기도 했습니다.

저는 평상시에도 이주여성으로서 저와 같은 이주여성의 인권 지원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작년에 우연히 센터 부설기관인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에서 통·번역 교육을 받으면서 센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받은 교육이 이렇게 인연이 될 줄을 몰랐습니다. 그저 이주여성의 인권 보호에 관심은 컸지만 어떻게 활동해야 할지 그림을 그리지 못했습니다. 2016년 9월부터 센터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이주여성 인권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와 인권 의식을 깨달았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일을 시작하자마자 경기도 광주에서 발생한 캄보디아 이주여성 노동자의 성폭력 사건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지원을 하기 위해 우리 집인 양주에서 센터와 광주시까지 오가며 사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첫 출근에 이렇게 큰 사건을 접하니 저는 많이 당황하고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 몰라 어리둥절하기도 했습니다. 센터에게 제게 힘을 보태주어 인권침해를 당한 캄보디아 이주여성을 지원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정도였습니다.

이주여성인권지원단 교육,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상담 지원, 사무 업무 등을 하면서 매일 매일 새롭고 조금씩 성장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센터에서 일하면서 제가 이주여성으로서 이주여성들을 돕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확신이 생겼습니다. 한국어 능력을 키우기 위해 한국외국어사 이버대학교 한국어 학부 1학년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인권익식,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열심히 배우며, 능력을 키워 이주여성으로서 이주여성의 인권을 지원하는 멋진 활동가가 되는 꿈을 꿉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2016년 **낯설**과 **꼭** 그리고 **어울림**

후원행사에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

Danh Thi Loan Lijiawei Liu X Pham Song Srijun Ng Tham Yang Sango Zhaowei Whv Li 강대인 강명혜 강정식 강혜정 고미경 고병현 고영순 구즈만 찰린 권미경 권미주 권영숙 김경연 김경지 김경희 김규리 김금숙 김남경 김대곤 김동훈 김동희 김명현 김미경 김미랑 김민정 김상임 김선실 김성미경 김수곤 김순현 김애화 김엘리 김영희 김옥남 김은경 김정석 김정혜 김지혜 김진아 김채연 김현미 김혜숙 김화희 남기신 남기창 남인순 남지은 하주연 심해림 남홍실 노경애 문경란 문현아 박준규 문화령 박건 박수연 박승미 박창식 박혜원 박희진 방태진 배순옥 배외숙 배희은 서미숙 서정명 성명옥 소라미 손영미 송해진 신숙자 신승훈 심정란 안광수 안은경 안중철 양대근 양미화 양유경 왕혜연 우경래 울산이혜진 원금자 원티현 위선주 위은진 유건재 유경남 유문삼 유미 유선영 유영 윤미향 윤은숙(서울연합회) 윤은진 응앤티투짱 응웬티비엔 이명자 이미경 이미영 이상희 이선경 이선미 이세은 이수진 이수화 이숙진 이송리 이안지영 이연희 이영미 이영환 이윤가 이유정 이은우 이은정 이정희 이지민 이지선 이혜 이혜진 이홍란 인사랑(강선경) 임동숙 임병철 임숙희 임순영 임지은 임철원 장상 장해숙 장혜정 전규자 전순란 전효상 정구순 정미현 정설경 정수림 정창혜 조대현 조숙현 조영란 조인섭 조인영 조효제 차인순 천명자 천연미 초옴찬피런 최경옥 최경원 최서연 최소영 최수연 최진선 최진아 최진영 추사 하경순 하성순 한국염 한상희 한선희 한수복 허성우 허영숙 홍계양 홍매화 홍보연 홍성운 황규설 황성숙 황수진 황지연

단체

NCCK 여성위원회 강동교회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공덕장로교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교회여성연합회 기장서울교회 들꽃향린교회 사회적협동조합 다문화너머서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동서울영락교회 두레방 베다니집 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 사르폴로바키알 새길교회 생각나무 BB센터 서귀포제일교회 서울제일교회 성남이주민센터 성지오에이시스템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안양중앙교회 여신학자협의회 연대대학교회 예배공동체 예수 (주)왕성전력 외국인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울산두레교회 (사)유엔인권정책센터 의정부 EXODUS 이앤아이월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이주민건강협회 전북이주여성인권센터 주민교회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주)클레이 주원 (사)탁틴내일 통합제주노회 (주)트립티 풍산교회 하나다문화 다린 (재)한국기독교교장로회총회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림교회

2016년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와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인

개인 강성의 권태철 강혜정 곽종빈 길형준 김미경 김민정 김상임 김수진 김우정 김윤희 김은경 김지원 김지혜 김채연 김해숙 김현미 김혜경 김화희 남인순 동애화 박세실 박장혜 백소영 서영선 석은미 신해진 안은경 왕혜연 유임숙 유해미 윤대중 윤새벽 윤정희 이경은 이명경 이서연 이해연 이해 이혜진 장옥미 장원섭 전순란 전풍자 조인섭 최진영 하대원 한가는 한국염 허오영숙 홍매화 홍보연

CMS CHHAYSokhor YOO JISU KLAIRE 강명혜 강선경 강성의 강성혜 강지연 강효숙 고영수 고영찬 고종식 곽종빈 권경원 권미경 권신애 권유진 권태승 권태철 길지현 김경은 김경자 김기남 김나연 김남경 김명남 김민정 김보라 김석수 김석찬 김선영 김설화 김성기 김세화 김엘리 김엘림 김영수 김영숙 김영완 김영진 김윤희 김은아 김은영 김은재 김은지 김은형 김이영 김인자 김인형 김일 김재림 김정남 김정은 김정임 김정희 김중범 김주영 김지은 김진경 김진영 김찬록 김철형 김평래 김현미 김혜정 김화희 김희은 남승연 노미향 노재훈 레티마이트 류유선 문선영 문현지 문화령 박금숙 박금옥 박덕진 박성희 박세라 박세실 박영은 박예지 박정진 박준범 박혜리 백미랑 보안델게르 서정명 서환원 성명 성지는 소라미 송재이 송미정 송옥진 송은주 송해진 신순애 신영철 신지연 안경자 안광환 안미정 양상옥 염인숙 엘사 연월 오나경 오지희 옥은정달이슬 우복남 원기정 원선아 원유진 원혜옥 원희석 원희영 원티현 위선주 유건삼 유미선 유세영 유연희 윤자선 이경숙 이기문 이나영 이명기 이명자 이명주 이명진 이민영 이봉우 이상훈 이선경 이상희 이소영 이수희 이순화 이송리 이영애 이윤희 이은숙 이정배 이정희 이중원 이중표 이주연 이지영 이철우 이태주 이하영 이해연 이해음 이현석 인금란 임숙희 임옥기 장성옥 장철기 전광식 전영미 전창배 전태규 전호식 정금자 정다영 정선애 정영선 정영자 정유신 정지영 정진실 정창혜 정철호 정현채 정환옥 조미진 조산새 조세은 조양희 조인섭 조진희 조현진 조혜진 주묘희 지미혜 진가희 차수진 최규삼 최나래 최민영 최성호 최승우 최영숙 최영은 최완영 최원민 최종만 최현정 표영미 하승희 한국염 한기숙 한동욱 한수복 한선희 한아름 한형주 홍도현 홍보연 홍향임 황수철 황인영 황정혜 황지연

단체 및 기업 강릉원주대학교 다문화학과 (주)국전약품 기장여신도회 동원교회 여신도회 동원이주여성 (사)희복지법인대명복지재단 라이프오브더칠드런 롯데면세점 비오씨코리아보협중개(다문화어린이도서관 너머서 지정 후원) 새말교회 8여신도회 순문화원 여신도회 전국연합회 윤기희 (주)윈스 주식회사B 재독한인교회 여신도회 연합회 청암교회 (주)케이티(전남지부 지정 후원) 코레일사회봉사단(생각나무BB센터 지정 후원) 하늘꿈교회 한강교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해피빈 향린장년여신도회



경남지부

개인 또는 단체 강봉수 김남연 김선이 김유일 김정화 김진권 박재현 설빙(진주판문점) 송현정 심재철 안춘상 오금석 이강옥 이은유 정극성 정문채 정원창 정현주 조소희 차재성 천미정 최기영 최철영 한국도로공사 진주시사

CMS 강경애 강기학 강남숙 강남임 강문순 강봉수 강재연 강정민 곽태원 구자영 김대영 김동예 김두정 김모래 김부정 김상호 김선이 김수민 김순덕 김영선 김영환 김재만 김점숙 김정화 김정희 김종식 김종신 김진권 김필선 김형민 김희란 남향숙 류환문 민경녀 박남효 박성훈 박세은 박용진 박지희 박향미 박희영 배종기 서명숙 서유선 서은애 신도식 신주수 안춘상 양임숙 왕복순 유근임 유승연 윤재천 이경운 이경자 이가꾸수마와띠 이남수 이돌녀 이명희 이영균 이영호 이은유 이재익 이정희 이화순 임미라 장미애 전은주 정경화 정극성 정영호 정원창 정인정 정정희 정향순 정혜란 정혜선 정혜윤 정희태 조경옥 조규천 조연이 조일순 지승호 진영희 최동진 최정숙 최종원 최천수 최철영 최태균 홍의숙 홍훈아 황민영 황숙희

대구지부

개인 또는 단체 이경숙(평촌해법) GS25편의점 공보현 객은정 금순환 김가영 김동욱 김미경 김미성 김민수 김민아 김범식 김성희 김순영 김승희 김애리 김양임 김영선 김영운 김예숙 김윤선 김재영 김준범 김준수 김지애 김진영 김진희 김형섭 더브릿지커피 더푸드하우스 루멘안경점 박병철 박세근 박혜정 박호주 서진혁 성종목 손경락 심우섭 유영경 윤경아 이미라 이미영 이미진 이산푸드 이선아 이소영 이순화 이예진 이용철 이은주 이재홍 이종백 이태중 장은정 장정희 정은하 정호진 조영호 주영주 채윤희 천수현 최미선 최수진 최정윤 최희건 (주)파라디이스웨딩 파티마노인요양센터 파티마의료기 표나리 함미운 호스트의료용품 흥명탁

CMS Olenitchevainga 강문순 강혜숙 고명숙 고미지 고은희 객신혜 김경희 김광미 김규석 김덕만 김마리아 김미조 김민정 김병수 김상희 김선희 김성규 김수빈 김수정 김슬예 김양식 김영인 김영희 김예숙 김옥순 김은주 김정진 김종탁 김주 김태락 김태한 김현미 김혜향 노진영 류수지 박선영 박소영 박신규 박연심 박영애 박영준 박은영 박점숙 박준혁 박태준 배은정 배진교 백선행 변운섭 서민호 서영근 서정란 송동희 신난희 신성옥 신영희 신은경 신주영 신희경 신희정 우순열 원경숙 윤상철 윤서영 윤용진 윤윤희 윤재실 윤정대 이순옥 이신아 이신영 이영선 이원심 이재동 이정애 이주현 이준호 이준희 이진석 이호영 임경아 장미희 장윤경 장재호 전은희 전응수 전정숙 정고은 정난향 정수희 정은주 정재옥 정재옥 정지현 정현지 제갈은서 조명숙 조수정 조용완 주홍매 최대희 최미란 최숙자 최진진 코발축마리아 팜티나 하한의원 하상권 한춘애 홍기선 홍은영 황춘식

부산지부

개인 또는 단체 김분경 이정화 우미숙 이화실 팽혜경

CMS KHEGAY LYUDMILA Osada yoshiko Shagdasurenzagdkhorloo Sharavdorjchuluun Er(에르덴) 고은영 권정애 권정희 김귀옥 김란미 김봉휘 김성재 김외순 김용근 김은혜 김지영 김현숙 나현영 박경희 박정민 박해경 부르테 유진 부티항 서인숙 손기남 신재희 아오끼유끼에 안윤지 우덕숙 우미숙 유명선 윤미리 이경주 이기선 이기숙 이수정 이승주 이정순 이정희 이지윤 이지훈 이하늘(진주) 이현주 임지현 전병익 정광희 정점숙 조경진 주지현 체르남비바자브 최경희 최미영 호티안뜨익

전북지부

개인 또는 단체 금강치과의원 김지연 송채영 이민자 이환옥 이희복 전해영 황분순

CMS 김세현 김연근 김학열 김형희 방용승

전남지부

개인 또는 일반 강민구 김가연 김대형 김미숙 김석운 김영래 김재영 김창경 김창호 김춘심 김치균 김희연 브라니차렌차이 서중진 성장규 송지은 안경환 양귀오 이덕심 이명순 이영민 이유나 이차열 최영진 장영운 장점향 정인옥 정현미 천훈 천광례 최미나 최정심 푸구온라켈

충북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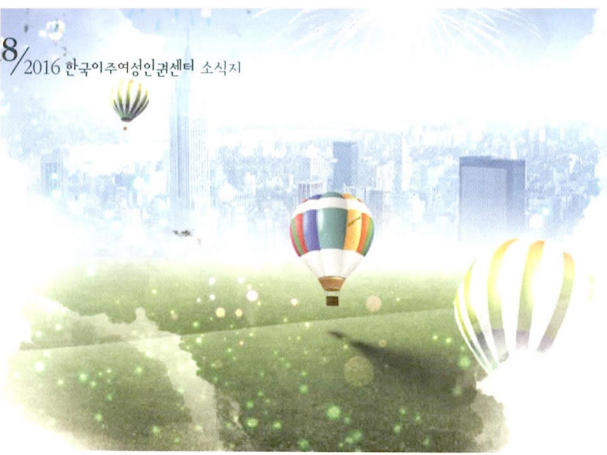
개인 또는 일반 강미란 강성의 알탄게렐에르헨체첵 엄혜옥 유경남 이현옥 임용규 장린 정규찬 주영홍 허미진

CMS ARAI YUKA 강호성 권용선 김경세 김광섭 김남철 김덕여 김명수 김선미 김양순 김영해 김원숙 김유화 김정선 김태순 김희식 남상금 남수양 노병언 박재능 박정민 박해영 박호실 박화순 박효진 방미옥 배성희 변정섭 서완석 석은미 손성호 송수진 송재봉 신중연 안건수 안광훈 알탄게렐에르헨체첵 엄경출 엄혜옥 연경희 연중우 왕혜경 우용식 이경림 이기숙 이두영 이민자 이석돈 이선진 이선희 이장희 이정아 이정우 이창호 임길수 장병화 전상우 정구인 정민희 정선희 정숙정 정은경 정태훈 조재운 조철호 주영남 지명구 최병욱 최영순 최윤옥 한범덕 한석주 한영희 한유경 홍경심 홍금희 홍승희 호산나영재어린이집



여러분이 계셨기에 이주여성인권센터는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활동

Women Migrants Human Rights Center of Korea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여성상담센터

- ★ 중국, 베트남, 몽골, 필리핀, 영어, 한국어 등 6개 언어로 상담과 통역 가능
- ★ 6개 언어 외, 기타 언어는 사전 예약 시 상담 가능
- ★ 상담 방법
 1. 전화 상담
 2. 면접 상담
 3. 사이버 상담
 4. 현장방문 상담
- ★ 상담 시간: 평일 9시~18시
- ★ 상담 내용:
 - 결혼 이주여성노동자를 위한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피해 상담과 법률 지원
 - 개인, 부부, 가족 상담
 - 가족갈등 예방과 해소를 위한 상담과 교육
 - 개인 심리치료 및 정서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 ★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 전화: 02-733-0120 / 02-3672-7559
 - 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8 (서린동) 서울글로벌센터 빌딩 6층 (지하철 1호선 종각역 6번 출구)
- ★ 대구이주여성상담소:
 - 전화: 053-944-2979 / 2977
 - 위치: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9 (신암동, 3층)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를 위한 센터

- ★ 한울타리 단기 보호 센터:
 - 위기에 놓여있는 이주여성과 동반 가족 입소 보호 및 지원
- ★ 서울, 청주, 대구, 전북, 전남이주여성센터
 -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이주여성 동반 아동 장기 보호 및 지원
 - 숙식 제공
 - 의료 지원
 - 법률 지원
 - 생활 지원
 - 정서안정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

정책·연구

- 이주여성 권익향상과 제도개선을 위한 장례 심포지엄
- 인식개선과 제도개선을 위한 캠페인
- 아시아 이주여성 국제회의 개최와 연대
- 이주여성과 관련한 정부정책 모니터링
- 이주여성 관련 정책 연구
- 연대 및 네트워크 활동

공동체 지원

- 자금심 향상 프로그램
- 나라별 모임 지원
- 문화활동 지원

교육

-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원 교육
- 이주여성인권전문가 양성 교육
- 이주여성역량 강화 교육 등

출판·홍보

- 이주여성 권익 옹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자료 발간
- 웹·오프라인 소식지 발행
- 누리집(홈페이지) 운영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여성의
인권과 평화를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설립 목적

이주여성의 인권 보호와 권익 신장,
성 인지적 관점에서 이주여성을 위한 교육과
문화활동을 통한 한국생활 지원,
모성보호와 육아 지원을 통한
이주여성과 자녀의 생명존중,국경을 넘는 연대를 통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듦으로써
평등하고 평화로운 지구촌 사회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활동 목표

- 이주여성 권익 증진
- 이주여성 한국생활 능력 향상
- 이주여성의 지도력 개발을 통한 자조 그룹 육성
- 성/인종 차별, 민족/국적의 차별을 넘는 다민족 공생사회로의 시민 인식 전환
- 자매애와 연대를 통한 아시아의 평화 공존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지부

- [경남지부]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055-741-6355 경남 진주시 진주성로 39번지 (인사동, 2층)
- [대구지부]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053-944-2979 대구시 동구 아양로 9 (신암동, 3층)
- [부산지부] 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 051-864-2603 부산시 동래구 연안로 59번길 99 (안락2동, 3층)
- [전남지부] 전남이주여성인권센터 061-272-1562 전남 목포시 마파지로 33-1 (대성동)
- [전북지부] 전북이주여성인권센터 063-227-2990 전북 전주시 완산구 인정2길 12-4 (중화산동2가)
- [충북지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043-223-5254 충북 청주시 상당구 교동로3번길 55 (북문로2가, 2층)